

## 인사말씀



조성래 대종회 회장

安寧하십니까

平素 一家和合과 花樹會發展을 위해 力盡해 오신 花樹會總聯合會 會長님께 感謝의 말씀드리고 또 各地域花樹會長님을 비롯한 여러분을 한자리에서 뵙게됨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咸安趙氏花樹會總聯合會 2012年度 定期總會를 賞賀하면서, 善行表揚을 받으신 受賞者 여러분께도 賀賀의 말씀드립니다.

생각컨대 오늘 이 行事는 祝賀와 더불어 花樹會

의 發展方案도 講究되어야 하겠기에 저 역시 宗事와 關聯해 몇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지난 9月 15日 聯合會에서 主管한 '21原派代表 및 地域花樹會長連席會議' 案件中 제일 立場차가 커던 것이 "咸安趙氏門中을 代表하는 (새로운)統合기구마련" 이었으며, 그理由는 大宗會에서 21原派全部를 아우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저는 6년여에 걸쳐 己未大同譜를 모실 때 각 原派 모두 參與하셨고 또 宗事를 大宗會와 事前에 協議없이 地域花樹會會長님들이 多數모인 聯合會에서 舉論, 一方通行式의 舉手可決하는 것은 適切하다고 判斷되어 反對했으며, 一部 原派에서 部分적으로 參與하고 계신데 대하여는 會長으로서 未安함을 표한 바 있습니다.

또 統合에 대하여는 德谷公派 來洪胄孫님의 己未大同譜跋文에 "權道로서

각기 모신 派譜를 大同合譜하였고 先祖의 靈魂이 明明한 가운데 默默히 도우셔서 後孫의 마음을 열어 根本을 깊고 宗族間에 和睦한 道理를 알게함" 이라고 쓰셨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現時點에서 더욱 和合하고 하나로하여 힘을 모으기 위해 表現은 適切하지만 大宗會와 聯合會가 統合기로함에는 同意한 바 있습니다. 저는 지난 連席會議때 平素의 構想을 表明했듯이 앞으로 모두 參與할수 있는 方案으로 元尹公의 設壇이 以北에 모셔져있지만 南北이 分斷狀態이므로 元尹公이하 參軍公까지의 設壇을 本鄉에도 모시도록 來年總會 議案으로 上程 推進코자합니다.

또 우리 咸安趙氏 大宗會 會館 建立을 위해 역시 貫鄉인 咸安에 敷地 4筆地 1,071坪을 買入目標로 하여 이미 3筆地는 買入하였다는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現在 大宗會에서

進行中인 事業으로 위로부터 近世까지 144분의 文獻主要部分을 集大成한 「(假稱)咸安趙氏 文集總觀」編纂을 위해 資料를 收集數次 會議를 거쳐 自體校訂이 거의 完了段階에 있으며, 이 事業에도 각 原派가 參與하고 있음을 곁들여 말씀드립니다.

以前부터 大宗會와 花樹會의 關係를 나무의 根幹과 枝葉으로 比喻하여 根幹없는 枝葉은 있을 수 없고 枝葉없는 根幹 또한 不實할 수밖에 없기에 우리가 하나임을 萬枝同根으로 表現해 왔습니다. 그리고 落葉歸根의 理致를 깨달아야합니다. 따라서 저는 根本的으로 宗事는 大宗會를 中心으로 이루어야 되고, 大宗會에서의 役割이 不足함이 있다면 이에 대해

一家 여러분의 高見을 들어補完 運營해 가고자합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 모두 反求諸己의 姿勢와 戰戰兢兢하는 마음으로 崇祖尙門하는 일에 함께 參與하고,

그리고 이 자리가 더욱 和睦 할 수 있는 祝祭의 場이되고 花樹會와 聯合會가 發展할 수 있는 契機가 되시기 바라면서, 行事準備에 수고하신 執行部 여러분의 勞苦에도 慰勞의 말씀 드립니다.

一家 여러분 내내 健勝하시고 宅內 萬福을, 또 聯合會의 無窮한 發展을 祈願하면서 激勵의 말씀 드립니다. 感謝합니다.

2012年 10月 28日  
(화수회총연합회 정기총회시)

咸安趙氏大宗會  
會長 趙聖來

## 논단

## 함안조씨 대종회의 당면한 현안문제에 대한 소고

우리 함안 조씨는 여말의 두문명현(杜門名賢)인 금은(琴隱), 덕곡(德谷), 천산(泉山)을 위시하여, 단종조의 생육신의 한 분인 정절공 어계선생, 그리고 함안조씨십삼충록에 수록된 충효에 목숨을 바치고 종묘사직을 위하여 공훈을 세운 선대 열세 분, 이후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신명을 아끼지 않고 공적을 남기며, 정치와 경제 사회와 문화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분이 헤아리기 어려울 만큼 배출되어, 조선의 명별로 지칭되고 있음은 자타가 공인하는 바이다.

함안조씨 화수회연합회에서는 연이(延李), 광김(光金) 못지않은 名家門이 되려면 대동단결의 기구가 설치되어야 한다니, 문벌의 위상을 타문중과 비교하여 낮추어 평가함은 곧 선조를 폄하하는 무례막대한 행위이다.

족보는 신분의 징표였다. 500년 조선왕조에서의 신분 계급제도는 그지없이 엄혹하여 신분의 불명확 또는 동등치 못한 자는 족보

편찬에 참여할 수 없었다. 그리하여 족보의 매매행위가 이루어졌으며, 투탁하는 사례도 아주 많았다.

우리문중의 족보는 간송선조께서 1664년에 편찬 발간한 갑진보가 시보(始譜)였었다. 이후 무오, 경자, 을유년에 세 차례의 중보관 족보가 발간되기는 하였으나, 계대가 불분명한 까닭으로, 본보에는 수록되지 못하고, 별보에 등재 된 자가 적지 않았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1973년에 기족적(學族的)으로 선출된 대표인사가 회합하여 대동단결 화합을 목적인 기미대동보를 편찬 발간하기를 의결하여 1979년에 소위 4대보 상의 별보

에 등재된 족당(族黨)을 모두 본보에 수록하고, 소목(昭穆)도 일목요연하게 한 획기적인 대역사가 완성되었다. 우리나라 대성에 속하는 삭령(朔寧) 최(崔)씨나, 남원(南原) 양(梁)씨 등은 계대가 불분명하다는 사유로 합보하지 않고 있으나, 우리 함조는 많은 어려움을 배제하여, 함조의 대화합을 위한 대

동단결을 이루었다.

그럼에도 새삼 다시 대동단결해야 한다며, 화수회보 제115·116호에 순조롭게 운영되고 있는 현 체제를 분열 파괴하여 족의를 손상시키, 함조의 전통적 위상을 훼손하고, 종통을 어지럽게 하려는 의도는 대체 무엇인가? 기미대동보의 발간사와 1권 후미에 기재되어 있는 발간위원의 명단을 살펴보면 그 과정을 명확히 알 수 있다. 사실 여부는 알 수 없으되, 개중에는 자퇴하여 족보발간에 참여하지 않는 자가 있었다하나, 이는 당사자가 주어진 권리를 포기한 것이니 더 이상 거론의 대상이 못된다.

기미보 1권 7P의 凡例 11항은 당시 발간에 간여한 족당의 난상토론후의 합의에 의하여 명문화 된 것이다. 엄연한 이 사실을 부정한다면 기미대동보 자체를 부정하는것이니 옛날의 본보 별보가 구분된 4대보를 유일(唯一)한 족보로 삼겠다는 것인가? 참으로 이해 할 수 없는 사안이다.

함안 서산서원의 창건이래의 유지관리와 철거된 후의 복원사업 등은 어느 자손이 관장하였는가! 선대의 빛나는 업적을 모르는 것은 부지(不知)요, 알면서 본받아 실행치 않음은 불명(不明)이요, 엄덕을 널리 현창하지 않음을 불인(不仁)이라한 유교사상을 신봉하여 삼불인(三不仁)의 죄를 조금이나마면하려고, 숭조정신의 천양 사업으로 『어계선생집』과 『육신전』의 발간, 함조대종회 홈페이지를 구축 개통과 십삼충실록을 국역 발간하여 전국에 반질한 자 과연 누구였던가? 전통은 소중하다. 모두가 수호해야하며, 이어 나가야 하며, 발전시켜야 한다.

여조말엽이래 620여 년이란 긴 세월 동안 함조의 역사와 전통을 빛낸 문중은 어느 문중이었던가! 자연 발생적으로 숭조사상을 돈독하게 실천한 유사와 집사의 모임이 함조종사운영회가 되었으며, 함조종사운영회가 절차를 밟아 함안조씨대종회로 바뀐 것은 당연 이상의 당연지



조상래 대종회 고문

사이다. “지손의 지손들이 대종회라 함은 타당치 않다”라는 연합회보 편집자 몇 사람은 함조의 역사와 전통을 깊이 모르기 때문에 망언으로 단언지울 수 밖에 없다.

함조인 전체를 후덕관대하게 포옹하여 숭조목종의 정신을 함양하고자, 심지어 호적상의 본관을 고쳐주어 가면서 이문 문중의 특출한 관용의 은덕을 잊고, 감히 무례 막중하게도 교훈적 언사를 주저 없이 맵고, 당연이상의 당연지사를 과오라고 단정 지으며, 자신의 신분을 망각하면 할 수 없는 죄를 저질은 터에 대종회란 몇몇 사람에 의한 호칭이므로 잘못된 점을 문책하여야 한다니, 배운망덕도 유만부동이다. 함조대종회는 이번이 사건을 계 -- 2면으로

기로 종사(宗事)에 가일충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여 위에 언급한 채제공의 십 층록 서문중의 “충신은 한 군 한 도내에서 구해 도 보지 못했으며, 넓게 한 나라 안에서도 쉽게 보기 어려우며, 천하와 역사 속에서도 손가락으로 헤 아릴 수 있는 정도이다.

그런데 한 문중에 열 분의 충신이 모여 났으니 고금에 휘한한 일이 아니겠느냐!”는 뜻을 후대에 까지 넓게 알려 함조의 궁지(矜持)를 당당하게 지켜 나가게 해야 할 것이다.

이어 이미 마련된 함안 원북의 부지에 13층비의 건립과, 대종회관의 신축,

시조공이 하여 선대의 설단 사업 등과 아울러 이전에 내걸었던 ‘서산장학회’ 현판도 다시 거는 장학 사업의 활성화 등 많은 위선사업을 정성모아 힘을 다하여 명실상부한 함안조씨대종회의 역할을 수행해 주기를 바라 마지않으며, 화수회연합회도 유사 아래 공고히 지켜 나온 충효 절 의사상을 견지하면서 종전에 못지않게 숭조목종의 의의를 더욱 돋독히 하여 종족간의 대화합에 뜻을 함께 해줄 것을 믿어 마지 않는 바이다.

2012. 11.  
함안조씨대종회  
고문 趙相來 記

## 壬辰年(2012) 묘향(墓享)



11/24/2012

사진은 전서공 묘위전(군북면 원북리)

함안 3선소(三先所)墓享이 11월 24일과 25일(陰 10月 11·12日 定日)에奉行되었다. 墓享 첫날은 오전9시부터 전서공(典書公 謂悅) 묘위전을 시작으로 원북묘역에서, 오후 1시부터는 하림리 시정공(寺正公 謂安) 묘위전부터 모셨으며, 익일 10시에는 법수면 강주리 응

암 정절공(貞節公 謂旅)묘위전에서 모셨다.

양일간 3所참석 연인원은 560여 명이었고, 또 함안군 산인면 내인리 어모공(禦侮公 謂昌) 묘위전에도 25일(陰 10月 12日) 오후 1시부터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묘제를 받들었는데, 禦侮公 위전에는 지난해부터 대종회

에서 제물(祭物)을 준비했다. 묘향 후 중식은 조동휘(趙東輝·罐, 禦侮公派)고문이 ‘맛고을식당’에서 제공하였으며 식사 후 오랜시간 담소(談笑) 후 헤어졌다.

壬辰年 墓享 헌성자(獻誠者)명단은 8面 별표와 같다.

## 운영위원회 개최



운영위원회 회의장면

제38회기 첫 運營委員會(수석위원 趙英濟)가 지난 10월 16일 11시 大宗會會議室에서 개최되었다. 22명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 (가칭)咸安趙氏 文集總觀編纂과 관련한 심의에 앞서 7월 3일부터 10월 5일까지 8

회에 걸친 회의와 業務要約 「1)편집위원회 구성 2)21원과 대표(편찬위원)」 회의 등에 대해 경과보고가 있었으며, 의결사항으로는 이미 쓰여진 비용 3,610,300원 추인하면서 ①문집총관 편찬 1차비용

약 3,700여 만원의 전용승인 ②采薇亭 연당 준설작업 승인(견적금액 200만원) ③院北齋(구)화장실 철거 및 관리舍 마당 포장공사 승인(견적금액 1,633,000원) ④霞林齋 화재복구 대책협의 및 대책위원 선정- 선정된 대책위원: 趙英濟, 趙鏞邦, 趙煮來, 趙秀男, 趙鏞得, 趙魯濟, 趙俊濟, 趙顯烈(이상 8명)과 대종회장, 사무총장.

⑤함안군 법수면 강주리 “미남지구 수해 상습개선사업”으로 편입될 宗土 수용 건 동의 ⑥大宗會와 花樹會總聯合會와의 통합추진을 위한 10월 19일 회동관련의 견수령이 있었으며, ⑦大宗會 “로고” 선정의 건은 내년 종회 전 2월에 있을 운영위원회의 때로 미뤘다.

## 황암사 제례와 충의공파 정기총회



제례에 참석한 종원 일행과 대종회 조성래(中) 회장

지난 10월 3일(음력 8월 18일) 경남 함양군 서하면 황산리에 위치한 황암사(黃巖祠)에서 「황석산성 순국선열 순의 415주년 추모제례」가 열렸다.

이날 경향 각지에서 추모객 300여 명이 참석했고, 함안조씨 문중에서는 대종회 조성래(趙聖來) 회장, 조훈래(趙勳來) 충의공파종회장, 부산화수회 조현준(趙顯峻) 회장과 조백제(趙柏濟) 직전회장, 조연규(趙鍊奎)고문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황석산성 전투는 전 함양군수 조종도(趙宗道)와 안의현감 곽준(郭浚)이 수성장이 되어 인근 함양, 안의, 거창, 합천 등 7개 군현 3, 500여 명의 관군과 주민이 혼연 일체가 되어 1597년 추석을 전후하여 진주성을

함락하고 남원 방면으로 진격하던, 조총으로 무장한 일본군 정예부대인 가또기요마사(加藤清正), 구로다 나가마가(黒田長政) 등이 이끄는 75,000여 명과 2박 3일간 치열한 전투를 하여 적군에게 치명타를 가하고 전몰한 가슴 아픈 전투를 말한다. 나라에서 이를 알고 숙종(肅宗) 40년(서기 1714)에 황석산 밑에 황암사(黃巖祠)를 짓고 사액(賜額) 후, 황석산성 싸움에서 순절한 모든 분들의 원혼을 달래는 위령제를 지내 왔으나, 일제강점기에 사당이 훼리고 추모행사 마저 중지 되었다.

1987년에 황석산성이 사적 제322호로 지정되었으며,

이를 계기로 지방민들이 정성을 모아 2001년에 호국의종(護國義塚)을 정화(淨化)하고 사당(祠堂)을 복원하여 매년 숭고한 호국정신을 받들고 있는데, 올해는 바쁜 중에 충의공(忠毅公) 대소현(大笑軒) 선생의 종손인 조동윤(趙東潤) 종원이 종헌관으로 참석해 주목을 받았다.

추모제가 끝나고 참석한 50여 명의 종원은 추모위원회에서 제공하는 점심을 먹고, 바로 충의공 대소현 조종도 선조의 세장이 있는 산청군 단성면 소남리로 자리를 옮겨 불천위(不遷位) 제례를 모신 후 충의공파 정기총회를 가졌다.

총회에서는 회무보고와 감사보고가 있었고, 충의공파 종원들 몇 분이 조동윤 종손이 서울에 거주하고 바빠서 자주 참석하지 못해 아쉽다는 말에 조동윤 종손은 앞으로 가급적 시간을 내어 참석하겠다고 화답했다.

(편집부 趙平來)



충의공 大笑軒 趙宗道 불천위 제례에 잔을 올리는 대종회장

## 국천제(菊薦祭) 봉향



국천제를 봉향하는 모습

정절공(貞節公)에게 조려(漁溪 趙旅) 선생 등 생육신께 드리는 임진년(壬辰年) 菊薦祭가 2012년 10월 23일(음력 9월 9일) 오전 10시 30분 함안군 군북면에 위치한 서산서원(西山書院) 이사장 趙性勳, 원장 李正

均)에서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엄숙히 봉행되었다.

초현관에 학교장 출신 한선우(韓善愚)씨, 아현관에는 유학자 최자균(崔子均)씨, 종헌관에는 대종회 조용섭(趙鏞燮) 수석부회장이었 --- 3면으로 계속

고, 집례에는 남상순(南相珣)씨, 축관에는 이재영(李在永)씨 이었다.  
국천제 봉향이 끝난 후 점심식사를 하고 서산서원 승의당(崇義堂)에서 회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2년도 서산서원 정기총회가 열렸다.

民生大本莫如農  
按節義和使授從  
不雨天應虛送夏  
無禾人乏凜來冬  
頻凶前鑑幾驚庫  
治水今年十御龍  
大野枰碁先後置  
青青白白善形容  
大旱月餘大雨公  
雷聲先起扶桑東

민생의 큰 근본 농사만한 것이 없으니,  
절서를 살피는 일관 월역을 반포 따르게 하오.  
비오지 않은 날씨 여름을 엿되게 보내고,  
곡식이 없는 사람 궁핍하게 겨울이 다가 오네.  
자주 든 흥년 겪는 고통 가실 날이 없는데,  
금년에도 물 다스리는 용이 열 마리라오.  
광대한 들은 바둑판처럼 앞뒤로 펼쳐졌는데,  
청청백백 그 형태 잘 드러나고 있네.  
한 달 남짓 큰 가뭄 끝에 큰 비 내리니,  
우레 소리 부상의 동쪽에서 먼저 일어나네.

어계(漁溪) 선생(先生)의  
본집(本集) 이외에 습유시  
(拾遺詩) 아홉 首가 김극검  
(金克儉, 본 김해, 1439~  
1499, 대사헌 역임)의 문집  
인 「담현집(淡軒集)」에서  
발견되었다. 그 제목을 열거

해보면 증담현(贈淡軒) 오  
수(五首), 유안동옹봉(遊安  
東鷹峰), 남한사(南漢寺), 수  
병(水瓶), 화로(火爐) 등 사  
수(四首)이다.

담현(淡軒)은 金克儉의  
호이고, 다른 호로 괴애(

乖崖)라고도 한다.

어계선생께서 배이산 아  
래 은거하고 계실 때 함  
안군수로 부임한 (1473.1  
~1473.12) 金克儉이 간혹  
방문한 듯하다.

金克儉의 文集이 한말

고종 때에 처음 간행되었  
기 때문에 이 詩文이 이제  
야 발견된 것이다.

이 중 漁溪先生께서 金  
克儉에게 준 詩文 증담현  
(贈淡軒) 두 수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須臾風引難名德  
倉卒雲行造化工  
異色春客田滿水  
同心人望歲成功  
需然何處無餘澤  
莫曰冥冥彼太空

잠깐 사이 불어온 바람 고마움 표현하기 어렵고,  
창졸간에 모여든 구름 조화의 기교로세.  
봄빛은 형형색색 전답에는 물이 가득하고,  
사람들은 한마음으로 풍년을 바라네.  
험차게 내리는 비 어느 곳인들 혜택 없겠는가,  
저 하늘 무심하다고만 말하지 말아다오.

이 시는 어계선생께서 당시 함안군수로 재직하고 있던 담현 김  
극검에게 준 시로서, 날씨가 몹시 가뭄 끝에 비가 내리자 자연의  
섭리를 극치의 편제로 묘사하여 애타게 비를 갈망하던 복민관의 심  
사를 위로한 듯하다. 傍裔 基周 (在·대종회 부회장) 謹寫書

## 생육신 조려 선생 - 조원제(趙元濟) -

조카의 왕위를 찬탈한 숙부  
하늘이 울고 땅이 꺼지는 불의  
나라에 걱정에 몇 날을 지새우다  
청백리로 현신 하려던 마음 접으시고  
성균관 떠나 남쪽으로 행한  
무거운 발걸음  
생육신 조려선생.

지켜 드리지 못한  
가련한 어린 단종 임금님 생각에

바람소리 물소리만 들어도  
눈물로 가슴을 적시고  
임 생각 나라 생각에  
죽지도 못하시고 목숨만 부지하시어  
북쪽 향해 돈수백배 만수무강을  
빌고 또 빌었는데

저자: 경남 함안 출생, 전 부산대 공대 교수, 전 한국 경작학회 회장, 현 부산대 명예교수,  
한국과학기술 한림원 원로회원, 늘원 문화상 수상, 부산시 문화상 수상, '길' 동인, 대종회 자문위원

청천벽력 임 소식에  
황급히 청령포 물살 헤쳐 뛰어들어  
목숨 걸고 단종임금 시신을 수습하신  
만고의 충신! 조려 선생.

선생의 충절  
청사에 길이길이 영원하시리이다.  
생육신 조려 선생. - 길 同人誌에서

## 서산서원 현판에 대하여

까지로 다시 연장하였다. (편집부 趙平來)



2008년 4월 집의공파(執義公派) 과보 편찬준비 때 최병준 사진  
작가가 찍은 서산서원(西山祠宇)현판사진. 심하게 부식되었지  
만, '崇禎'이란 연호와 '癸巳' (서기 1713)란 년도 '賜額' 글씨  
가 지금까지 아직도 남아 있다.

## 선조의 얼 현장견학

서산서원(西山書院)을 방문하는 일가와 관광객들이 지금 걸려있는 현판이 조선 숙종 때 사액 받으면서 걸었던 현판이 아닐까 궁금해 하면서 현판을 유심히 살피는 사람들을 많이 보는데, 현재 걸려 있는 현판은 1984년 10월 서산서원이 복원될 때 걸은 현판이며 조선조 숙종 때 사액되면서 받은 서산사우(西山祠宇) 현판은 대원군에 의해 서원이 철폐될 때 원복제 뒤 조묘전(祧廟殿)으로 옮겨 잘 보관해 오다 2009년 7월 22일 여러 책판과 함께 도난과 심한 훼손을 염려하여 대종회에서 함안 박물관에 위탁했으나, 박물관에서 한국국학진흥원과 재위탁 관리 계약하고(본보 53호 참고) 약품 처리를 위해 한국국학진흥원에 보존되어 있는데, 재 위탁 기간을 2012년 7월 22일로부터 2015년 7월 21일

참고될 강의내용을 포함한 28항목의 자료를 수록한 책자를 함안조씨 절도사공파 종회에서 준비하여 참가한 일행에게 배포하였다. 당일 행사시 오전에는 대종회 趙曉濟사무총장과 서산서원 趙性勳이사장·동 趙判奎사무국장이 영접하였고, 오후에는 趙聖來 대종회장, 趙煮來 충의공파 종회장, 趙鏞得종회보편집국장, 趙平來 동 주필등이 일행을 맞이 하였는데, 일행은 서산서

매년 음력 9월 9일 오후에咸安3先所墓祭를 받을  
기위해 5집사(執事) 선정을 위한 典禮委員會를 개최하고 있는데, 금년에도 지난 10월 23일(陰9月9日) 13시40분에 대종회 회의실에서 典禮委員과 각 門中代表 28名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이날도 예년과 같이 5집사 50분

을 천(薦)했으며, 大宗會에서는 각 門中代表가 불참될 경우 해마다 회의 前日 까지 五執事 대상자를 천거(薦舉)해 주시기를 바라고 있다. 또, 제수(祭需) 준비와 묘역 벌초(伐草·2차) 및 주변 청소(淸掃) 종토(宗土) 임대료 수금을 위한 유사(有司) 회의는 11월 9일 11시에 있었다.

원으로 배달된 중식후 采薇亭→漁溪古宅→院北墓所

→鷹巖齋→鷹巖墓所를 경유하여 귀가했다.



절도사공 선조에 대한 설명회 참석종원

## 咸安趙氏 大宗會의 無窮한 發展을 祈願합니다

會長: 趙鏞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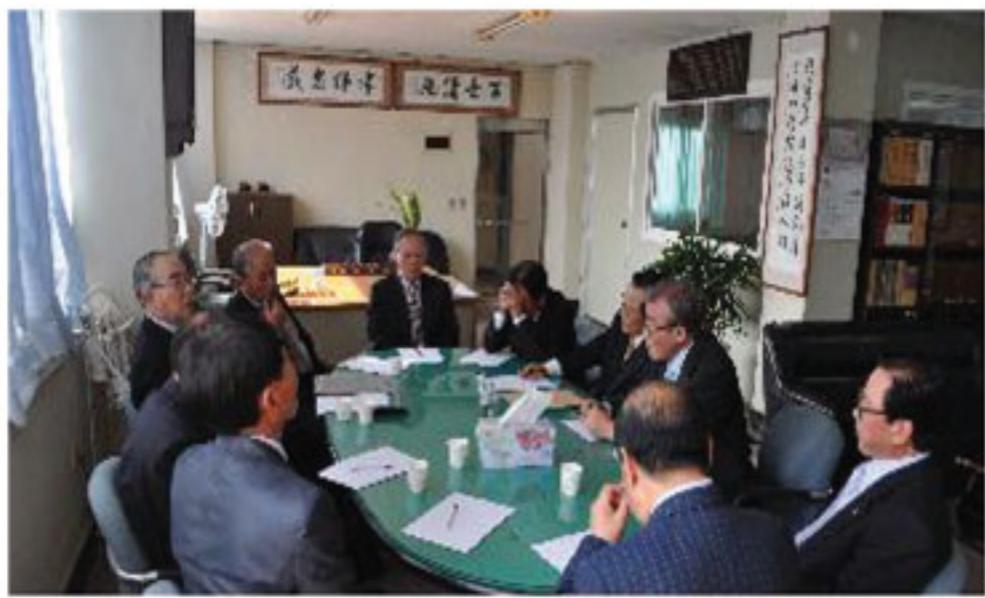
事務局長: 趙鏞成

監事: 趙相來, 趙顯鎮

副會長: 趙錫奎 趙鏞浩 趙鏞斗 趙鏞玩 趙鏞善 趙鏞根 趙鏞萬 趙銳濟 趙珉濟 趙伯濟 趙薰濟  
趙俊雄 趙憲濟 趙奉濟 趙元濟 趙英信 趙升濟 趙官濟 趙公濟 趙孟濟 趙先浩 趙忠浩  
趙二濟 趙民來 趙三來 趙宗來 趙允來 趙炯來 趙星基 趙禎來 趙良來 趙暉來 趙聖來  
趙顯九 趙鳳顯 趙顯秀 趙寅洙 趙顯國 趙顯晉 趙顯五 趙在翊 趙在烈

咸安趙氏 서울花樹會

## 대종회와 화수회 총연합회 통합논의 유보



대종회와 연합회 대표의 원탁회의 모습

함안조씨 대종회와 화수회총연합회가 통합 되었으면 좋겠다는 여러 종원들의 열망과 건의가 있었다는 이유로, 2012년 9월 15일 오전 11시 대전 태화장에서 연합회 주관으로 연석회의가 개최되었다. 이날 대종회 회장은 인사말에서 종사문제를 사전에 대종회와 협의없이 연합회에서 일방개최 거론함이 부당함을 표한가운데, 대종회 측에서는 21원과 종회장(대표)과 연합회에서는 각 지역 화수회장 다수가 모인 가운데, 열띤 토론이 있었다. 그 결과 단합과 화합을 위해서는 대종회와 연합회의 통합이 필요하다는 안이 가수 가결되었고 이를 논의하기 위해 양측에서 5명의 대표를 뽑아 다

시 회의를 갖기로 하고 헤어졌다. 그 후 부산화수회 조현준(趙顯峻) 회장의 주선으로 대종회 조성래(趙聖來) 회장과 연합회 조용완(趙鏞玩) 회장이 부산에서 모임을 갖고, 회의 날짜를 10월 19일로 하고 장소는 대종회 사무실로 하기로 합의했다.

부산에서 있었던 약속대로 10월 19일 12시 대종회 사무실에서, 대종회에서는 조성래(趙聖來) 회장, 조용래(趙容來) 禦悔公派 대표, 조양제(趙良濟) 判決公派 종회장, 조용하(趙鏞河) 耐軒公派 종회장, 조수남(趙秀南) 南溪公派 종회장과 연합회에서는 조용완(趙鏞玩) 회장, 조용가(趙鏞可) 서울화수회장, 조일제(趙伯濟) 창원화수회장,

조관제(趙官濟) 연합회 감사, 조래수(趙來洙) 小尹公派 안동회장이 참석하여 2시간 넘게 회의자료 없이 난상 마라톤 회의를 했는데, 많은 이야기가 오갔으나 원론에만 맴돌았고 서로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는 회의였지만 뚜렷한 결론은 얻지 못했다. 이날 양측의 주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연합회에서는 함안 조문이 대외적으로 힘을 발휘하고 그 동안 소원했던 소수 일가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게 하며 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조직이 일원화되고 체계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지금 대종회(大宗會)는 사실상 정절공(貞節公, 譚旅의 謚號) 후의 대종회이니 명칭에서 '大' 자를 빼고 이전의 함안조씨 종사운영회로 돌아가야 하고, 새로운 대표기구를 만들어야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종회에서는 기미대동보에서 밝혔듯이 이미 대동통합되었고 대종회와 연합회는 목적사업이 다르며 무엇보다 지금의 대종회를 인정하지 않는 발언과 대전 연석회의 때 가결된 대종회와 연합회의 통

합을 협의기로한 의제가 아닌 새로운 (안)을 제시하므로 회의 자체가 성립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약속을 지킬 때 대화로서 협의가 가능하며, 대종회 명칭변경은 절대 불가하고 그러나 매우 중요한 사안이므로 내년(陰) 3월에 있을 대종회 정기총회에 경과 보고겸 안건을 상정한 후 결정하겠다고 말하고 유보했다. 또 회의 중에 화수회보 제115호와 제116호 1면 상단에 조준하(趙俊河) 전 교수와 조창래(趙昌來) 종원이 쓴 기사가 후손된 종원이나 대종회를 자극하고 비하하는 내용이어서 과연 족목을 주장하는 종원이 쓸 수 있는 기사인가가 문제되기도 했다. 이후,

'함안조씨화수회총연합회 정기총회' (대종회장 인사말씀 1면 게재)가 2012년 10월 28일 오전 11시 대전 바이올렛 웨딩컨벤션에서 개최되었는데 이때 참석한 함안(본향)화수회 조삼현(趙三顯) 가야읍 회장은 의사 발언에서 10월 19일 대종회에서 있은 각 대표회의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연합회 대표 중에는 집의공파가 1명 들어갔지만, 집의공파 종회장이 대종회 대표로는 참여

할 수 없어 약2만이 되는 종원의 한쪽 의견은 전달되지 못한 점을 지적했고, 9월 15일 대전에서 있은 연석회의 때도 전국 화수회 조직을 보면 회장이 50여 명이지만, 원파종회장 21명중 참석하지 않은 대표도 있어 의사전달과 의결과정에 근원적으로 문제가 있었다고 말했다.

또 조용철(趙鏞喆)회원은 화수회보 제116호에 게재된 "호칭이란?" 글을 거칠게 비판했고, 대전 뿐만 아니라 공원에 연합회에서 단독으로 수비(堅碑·함안조씨 상징물)를 강행처리하고자 하는데 대하여도 본향화수회에서는 대종회와 사전에 합의 된 바 없이 일방적으로 할 수 없다는 주장은 함께 따라 장내가 소란해지면서 의결하지 못했다.

이어 본향화수회 조훈래 직전회장은 특히 총회에서 회원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데 발언중에 집행부에서 중단시키는 일은 있을 수 없으며, 대종회에서 할 일을 연합회에서 침해해서도 안되고 따라서 대전 뿐만 아니라 전국에 상징물 설치도 연합회에서 강행하려해서는 안된다고 말했으며, 뒤이어 또 다른 참석자가 발언하려 했으나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계속) 편집부 趙平來

김성림(金盛林 90세) 여사와 자녀로는 趙章濟, 匡濟, 民濟, 友濟, 與濟, 和貞(출가)이 있다. 조용진 박사는 많은 글을 남겼지만 알려져 있는 몇 가지 저서와 논문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저서로는 『브라멘드 教育思想』 『教育課程』 『西洋教育史』 이, 공저에는 『現代教育課程』 이 있다. 번역서로는 『Ragan의 初等教育課程』

『Crow 兒童心理學』 『現代 基本教育課程(Ragan)』 『教育實習指針(편저)』 『現代 教育原理(편저)』 등이 있고 30여 편의 논문과 많은 수필을 남겼다.

정부로부터 '대한민국근정포장'과 '국민훈장 목련장'을 수상하기도 했다.

## ◆ 함조(咸趙) 출신 교육학자 ◆



정봉 조용진

정봉(呈峯) 조용진(趙鏞振 執義公派, 1925.5.17~1994. 4.21)박사는 군북면 중암리에서 아버지 조경규(趙勁奎) 공과 어머니 벽진이씨(碧珍李氏) 사이에 외아들로 태어나 진주농고와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학과와 서울대학교 대학원 교수연구원을 수료하고, 그 후 충남대학교 대학원에

서 철학박사(교육철학) 학위를 받았다. 조박사는 마산 상업중학교(현 용마고), 진주사범, 부산사범, 부산대, 해인대 강사와 진주교육대학장, 마산교육대학장, 충남대학교 교무처장, 충남대학교 교육대학원장 등 40여년을 오직 교육현장에 근무하면서 여러 분야에 기라성 같은 많은 제자를 양성했으며, 한국교육학회와 일본교육학회 회원으로 학회에서도 활성화 활동을 펼치기도 했다.

고향 후배인 고려대학교 강진철(姜晉哲) 전 교수는 "우리나라교육학계의 중진이며 그가 수많은 논문저술·역자 등을 통하여 교육학계에 이바지한 지대한 공헌

에 대해서는 우리가 익혀 잘 알고 있는 바이다. 그러나 조교수는 결코 단순한 백면(白面)의 학구만은 아니다. 조교수는 경륜의 분야에서도 남다른 큰 포부와 용지를 지니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오래 동안 여러 곳에서 대학행정을 직접 주관하기도 하였고 또 많은 학술 문화단체의 간부 위원을 겸하면서 늘지도 적인 활동과 발언을 해왔다"고 회고 했다.

조인제(趙仁濟) 의학 박사는 趙鏞振 박사가 학회에 참석하기 위해 여러 차례 일본 동경을 방문했는데 그 때 많은 대화를 나누었다며, 일화 하나를 소개했다. 조용진 박사는 일 반적으로 내과와 외과에서

는 신체의 환부를 검사, x선, 현미경을 사용하여 진단 후 투약이나 수술로 치료하면 되지만, 정신요법에서는 사람끼리 흥금 없는 대화로 마음을 알기 위해서는 대화에 진실이 따라야 한다며, 교육을 정신요법에 접맥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한다.

"교육의 기능을 생각해 보면 교육은 의사의 정신요법과 같이 '인도하는 사람'과 '인도 당하는 사람'과의 교육적 인간관계 위에서 성립되어 있는 것이 아닐까? 고로 교육의 방법은 정신요법과 동일의 차원에 서로 같은 철학 즉 방법론을 가질 것이다"라는 말에 공감했다고 한다. 가족으로는 부인 김해

## 咸安趙氏 大宗會의 無窮한 發展을 祈願합니다

會長: 趙顯峻 事務總長: 趙顯判  
副會長: 趙定奎, 趙鏞範, 趙鏞玄, 趙泰熙, 趙鏞國, 趙魯濟, 趙成濟,  
趙魯濟, 趙倉濟, 趙奉濟, 趙晶來, 趙祿來, 趙昌來, 趙亨來,  
趙喜來, 趙富來, 趙在休, 趙在雄, 趙永鎬, 趙祥欽  
監事: 趙鏞德, 趙在日  
傳統文化院長: 趙錚連

獎學幹事長: 趙鏞洙  
支會長: 趙判兆, 趙鏞澤, 趙現奎, 趙平來, 趙鏞德, 趙德濟,  
趙秀弦, 趙赫, 趙鐵濟, 趙末來, 趙良國, 趙文濟  
企劃室長: 趙安濟  
總務部長: 趙鏞澤  
財務部長: 趙暉來

## 『함조문집』 총관 편집·편찬 위원회 개최

함안조씨 문집총관(咸安趙氏 文集總觀) 편찬을 위한 제1차 편집위원회가 지난 8월 17일에 개최되었다. 이에 앞서 7월 3일 11시에 함조문집총관 편찬과 관련하여 문안감수위원회와 유문집 후손 및 문중대표회의가 개최된(대종회보 제58·59호 참조) 이후 수차례 간담회 끝에 편집위원회도 구성하였다.

이날 현재 130편이 접수되

었으며 분량은 2권 1,076쪽이다. 편찬위원회도 지난 9월 21일에 21원파 종회장(문중대표)을 참석대상으로하여 개최되었는데, 이때 의결사항으로는 ①자료수집 기간연장: 10월 31일 까지 ②편찬위원회 구성: 21원파 종회장(문중대표) ③소요부수 조사제출: 12월 20일까지 ④화보개재원칙:(가급적)

원파당 2매 1면  
⑤예산조달 방안: 원파의 무금 + 수록분량분담금 + 유문집후손등 협찬금  
⑥묘향전 예산액 및 협찬금 접수방안 통보를 의결하였고 편찬위원회 이후 14편이 더 접수되어 10월 말일 현재 모두 144편이다.

또 편집위원 명단과 최종 마감일까지 추가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咸趙文集總觀 目錄(追加分)

連番	號	諱	遺稿名	序文撰者	墓碣銘撰者	冊卷數	備 考
1	河鷗亭	應卿					1487-1549
2	耐軒	淵	耐軒書牒		李光庭		1489-1563
3	松隱	疇	前川世稿				1658-1717
4	栗軒	墀	栗軒遺稿		金甫漢	1책	同知公派
5	立巖	墳	立巖遺稿		趙任道	1책	洞松堂公派
6	南隱	福奎	南隱遺稿	權燦		2권 1책	監察公派
7	花林子	躉彦	閑中謾齋	權淳		2권 1책	監察公派
8	晉山	敬祐	晉山遺稿			1책	南浦公派
9	無盡亭	參	槐山世祿		金塽	1책	執義公派
10	別巖	得浩	別巖遺稿			1책	同
11	廬陰	性覺	廬陰遺稿		朴致讓	1책	同
12	晦闕	篤祐	晦闕文集	柳必永	趙顯奎	4권 2책	同
13	梅山	龍奎	梅山遺稿	宋瓊煥	李章煥	4권 1책	德谷公派
14	槐隱	鍾求	槐隱遺稿	宋瓊煥	趙應濟	3권 1책	同
15	尋源堂	井愚	尋源堂集	金炳璣 河謙謙	安鼎呂	2권 1책	大笑軒公派
16	一線	顯武	一線遺稿			1책	執義公派
17	梅軒	亥奎	梅軒詩稿	宋瓊煥	李章煥	2권 1책	德谷公派

### 編輯委員名單

連番	職 責	姓 名	備 考	連番	職 責	姓 名	備 考
1	委員長	趙煥來	함안 가야읍	7	委員	趙文奎	함안 산인면
2	責任委員	趙相來	부산 해운대구	8	"	趙聖來	함안 산인면
3	委 員	趙鏞健	창원 의창구	9	"	趙平來	함안(실무간사)
4	"	趙鍾連	부산 해운대구	10	"	趙明來	대구 북구
5	"	趙榮奎	부산 연제구	11	"	趙昌奎	부산 수영구
6	"	趙旭來	김해 장유면	12	幹 事	趙曉濟	대종회사무총장

## 화제의 인물

### -7명의 총리를 보필한 조봉래 부이사관-



조봉래 부이사관

봉래(趙鳳來·忠毅公派) 박사를 위촉 했다.

교육정책 자료개발 및 연구소 운영 자문, 외부 수탁 연구과제 개발 및 수행과 정책추진 협조 등의 업무를 맡게 되는 趙부이사관은 행정 감사의 1호 박사이기도 하지만, 7명의 총리를 보필 하여 메스컴의 주목을 받기도 했다. 경남 함양군 서상면 출신이며, 국무총리실 부이사관으로 이해찬, 한

명숙, 한덕수, 한승수, 정운찬, 김태호, 김황식 총리 등 7명의 총리를 보필해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 여러 총리를 보필하면 무엇을 배웠는지를 회고 했다. 성공한 사람들의 장점이 무엇인지 를 통해 사회 생활에 좋은 약이 될 것 같아 소개한다.

이해찬 총리는 인상과는 달리 서민적인 분으로 정책의 큰 그림과 기획력이 탁월했으며, 한명숙 총리는 여성 특유의 섬세함과 부드러

## 응암재에 상수도 공사



응암재

함안군 법수면 강주리 소재 응암재(鷹巖齋) 상수도를 이전에는 간이상수도(簡易上水道)를 이용해 왔는데 簡易上水道 폐공사(대표 박미영)에 본 공사를 발주(發注)하여 11월 1일에 완공하였고 공사비는 170만 원이 들었다.

## 채미정(采薇亭)연당 준설



채미정 연당의 부엽토와 진흙 제거작업 모습.

2012년 10월 26일 함안군 군북면 원북리에 있는 采薇亭 연당에 수십년 동안 쌓인 부엽토와 진흙 제거 작업을 하여 말끔하게 되었다. 이날 작업은 장비 2대와 인부들이 동원되었지만 대종회 조성래(趙聖來) 회장, 조효재(趙曉濟) 사무

총장, 조용방(趙鏞邦) 도유사, 조정제(趙正濟) 유사가 현장에 나와 하루 종일 작업 지시와 주변 경관 정비를 했다. 특히..조정제 유사는 엔진 톱으로 지난 여름 태풍에 넘어간 나무제거와 정원수 전지에 많은 땀을 흘렸다.

운 카리스마가 있었다.

한덕수 총리는 국정조정 능력의 달인이었으며 업무 추진력이 탁월했고, 오페라와 미술 등 예술에 대한 관심을 趙부이사관도 이때부터 갖게 되었다고 말했다.

한승수 총리는 우리나라 외교사에 크게 기록되는 유엔총회 의장을 역임했으며, 폭넓은 인맥 관리 능력을 배웠다.

정운찬 총리는 성품이 온화하고 인자한 은사 같았고 국정을 차분히 쟁였으며, 정총리 시절에는 국무총리실 조직, 인사, 복무관리를 총괄하는 인사과장을

맡았다. 김태호 총리 내정자는 190cm 가까운 큰 기와 같이 대범하고 스케일이 큰 분이라 큰 스케일을 배웠다. 김황식 총리는 청렴과 도덕성으로 한 분야도 빠짐 없이 전체를 조용히 꼼꼼히 쟁긴다고 말한다. 趙부이사관은 열배 이론의 실천자로 주목을 받기도 했다.

하나를 받으면 열배로 갚는다는 신념으로 주변 사람들에게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으며, 교장 연수나 공무원 연수 등에서 생활신념을 재미있게 강의해 많이 알려져 있다.

## 咸安趙氏 大宗會의 無窮한 發展을 祈願합니다

顧問: 趙鏞守, 趙環濟, 趙順濟, 趙顯麒  
會長: 趙來榮  
副會長: 趙容來, 趙正來, 趙福濟, 趙勝濟, 趙容範(性), 趙鏞格, 趙明來, 趙龍來, 趙鏞述, 趙局來, 趙榮來, 趙浩奎, 趙來眞, 趙永來, 趙鍾壽(鏞), 趙在泰, 趙永濟, 趙運濟.

監事: 趙濟日, 趙方濟  
事務局長: 趙良治,  
諮詢委員: 趙良濟, 趙特來

## 채미정 복달음 행사

연례(年例) 행사는 채미정(采薇亭) 복달음이 지난 7월 28일(陰 6.10 中伏) 采薇亭에서 있었다. 날씨가 무척 더웠는데도 이날 행사에 趙在宇 종손과 趙英濟 집의공파(執義公派) 종회장, 趙良濟 판결공파(判決公派) 종회장, 趙快濟 참의공파(參議公派) 종회장, 趙煥來 종회장, 趙鍾來 조웅장학재단이사장, 趙瓈 汎 함안향교典校, 趙性勳 서산서원(西山書院)이사장, 趙鍊奎 서산서당(西山書堂)원장, 趙鍾來 조웅장학재단이사장, 趙顯峻 부산화수회장, 趙旼濟 창원화수회장, 趙日來 진주화수회장, 趙鏞珍 함안군의회의원, 趙命來 대종회고문, 趙鏞淳(대구)에 참석하였다.

구)자문위원 등 54명의 종원이 참석하였다.

작년 참석자보다는 다소 적은 편이었으나 새로 오신 분도 있었으며 해마다 참석하셨던 故 趙穆來 고문 등 연세(年歲) 많은 문중 원로(元老) 몇 분이 불참되시니 그 자리가 너무 커 보였다.

행사준비는 해마다 趙鏞邦 도유사를 중심으로 주로 군북면 원북리에 거주하는 일가 분들이 수고해왔으나 금년에는 “신아식당”에 위탁(委託)해 음식을 준비토록했으며, 대종회장은 그동안 수고해주신 분들께 감사 인사를 했다.

이날 협찬금(協贊金)을 내신분의 명단은 별표와 같다.

## 부산화수회 선적지순례 답사기



구미시 인동 영모재 앞에서

지난 10월 25일(木) 부산화수회(釜山花樹會)는 연중 행사의 일환으로 선적지(先蹟地) 순례를 하였다.

아침 기온이 싸늘한 7시 20분에 지하철 교대역 한양프라자 앞에서, 관광버스 2대에 조현준(趙顯峻) 회장을 비롯한 70명이 분승하여 경북 구미시 인동에 있는 처음 목적지인 내현공(耐軒公, 譚淵) 선조의 선적지를 향해 출발하였다.

시내는 출근 시간이라 정체가 다소 심하였으나 신대구고속도로 대동 나들목을 벗어나니 도로는 한산했고 부분적으로 안개가 자욱하였다.

1시간 정도 달려 청도 휴게소에서 내려 준비한 아침식사를 했다. 싸늘한 날씨 속에 김밥과 뜨거운 시래깃국, 돼지수육, 맛있는 김치, ‘즐거워 예’ 소주를 곁들여 다들 맛있게 먹고 구미시 인동으로 향했다.

1호차에서는 조종련(趙鍾連) 전통문화원장이, 2호차에서는 조용수(趙鏞洙) 장학간사장께서 아는 것만큼

보인다는 취지로 꼼꼼하게 연구. 작성한 선적지에 대한 안내 자료를 가지고 당일 답사에 대한 예습을 함께 했다. 10시에 구미시 인동 천생산(天生山) 영모재(永慕齋)에 도착하니, 대구의 조태영(來) 일가님께서 나와 반갑게 맞이해 주었다. 청송문화원장이며 내현공과 종회장이신 조용하(趙鏞河)님께서 마중하기로 계획이 되어 있었으나 문화원 일로 갑자기 캐나다로 출장을 가게 되어 조태영 일가께서 대신 나왔다고 하며 趙鏞河 회장께서 보낸 박카스 100병을 감사한 마음으로 나누어 마셨다.

일행은 먼저 내현공(耐軒公, 譚淵) 선조의 묘소에 간단한 제물을 차려놓고 참배를 한 후 좌측에 위치한 망운정공(望雲亭公 · 譚址) 선조의 묘소와 아래에 위치한 율현공(栗軒公, 譚壇) 선조의 묘소를 차례로 참배한 후, 합천군 묘산면 반포리로 향해 강행군을 했다.

12시 30분에 합천 목적지에 도착하자, 합천화수회

2012년 7月 28日				壬辰年 복달음 协贊者				(단위: 千원)	
연번	성명	주 소	금액	연번	성명	주 소	금액		
1	趙俊濟	함안 군북면 장지리	50	13	趙中來	함안 군북면 중암리	30		
2	趙薰濟	함안 군북면 박곡리	50	14	趙鏞澤	부산 동래구 안락2동	50		
3	趙鏞燮	함안 군북면 하림리	50	15	趙鶴奎	부산 동구 초량1동	50		
4	趙英濟	함안 함안면 괴산리	100	16	趙鏞洙	경남 양산시 평산동	50		
5	趙鍊奎	함안 산인면 보곡리	50	17	趙榮奎	부산 연제구 거제동	100		
6	趙命來	함안 군북면 사도리	50	18	趙日來	경남 진주시 칠암동	100		
7	趙煥來	함안 가야읍 말산리	50	19	趙顯峻	부산 동래구 온천2동	200		
8	趙鍾來	함안 가야읍 말산리	50	20	趙性勳	함안 군북면 덕대리	50		
9	趙圭濟	함안 군북면 덕대리	50	21	趙良濟	대구 중구 대안동	50		
10	趙璟汝	함안 가야읍 도항리	100	22	趙國濟	창원 마산회원구 양덕동	100		
11	趙鏞珍	함안 가야읍 도항리	50	23	趙鏞夏	함안 군북면 사촌리	50		
12	趙權濟	함안 가야읍 도항리	50	24	익명		50		
소 계				※ 접수順		누 계		1,580	

## 원북재 관리사 마당 포장

함안군 군북면 원북리 소재 원북재(院北齋) 관리사 마당에 동절기나 우천시 물이 고여 불편을 겪어오던 중 지난 9월 25일에 관리사

(管理舍) 마당 포장공사를 했다. 또 이때 화장실 신축(함안군 시행 · 종회보 제 58호) 공사후 구 화장실 일부를 철거한 나머지 부분도

철거하였으며, 공사는 함안 건설(대표 박인규)에서 시행(施行)하였고, 공사비는 1,633,000원이 들었다.

## 하림재(霞林齋)에 화재 발생



화재감식 당시 하림재

함안군 군북면 하림리 시정공(寺正公, 譚安)의 재사(齋舍)인 하림재에 말벌집을 제거하다 화재가 발생했다. 대종회 趙聖來회장이 주석을 앞두고 선조 묘소와 재사(齋舍)를 둘러보다 하림재 마루 위에 큰 말벌집을 발견하고 청소불가하여 趙曉濟 사무총장을 통해 군북 119에 제거를 의뢰하자 대원 두 명이 2012년 9월 27일 오후 3시 15분 경 함안군소방서에서 출동하여 일명 ‘토치카’로 벌집을 제거하고 돌아갔다.

이날 하림재가 있는 마을에 거주하는 조호성(濟·節度使公派 32세) 종원이 밤 11시 30분경 밖에 나왔다가 재사 지붕에 불길과 연기를 발견하고 바로 119에 신고를 하자 출동한 소방관들이 불길을 진압했으나 사진과 같이 용마루 부분 2/3 정도가 불에 탔다.

다음 날 대종회에서는 회장을 중심으로 하여 현장을 그대로 보존하고 경남도소방본부에 빠른 조치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내었으며,

이후 10월 10일 경남 도경과 함안경찰서, 경남소방본부와 함안소방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등에서 20여 명의 관계자들이 나왔고, 문중에서는 대종회 趙聖來회장, 趙鏞燮수석부회장 趙命來고문, 趙在守자문위원, 趙文奎이사, 趙曉濟사무총장, 등 종원 20여 명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봤다. 종원들이 벌집을 ‘에프킬러’로 제거하면 될 텐데, 왜 가스불을 사용했는지…? 질문에 대한 대답은 말벌은 ‘에프킬러’에 잘 죽지 않고 쏘였을 때, 생명의 위험도 있어 그랬다는 답변이 있었다. 소식을 접한 외부 사람들중에는 벌집 제거와는 별도로 누전에 의한 화재가 아닌가 하고 의심하는 분이 있었으나, 하림재에는 전기시설이나 난방시설이 되어 있지 않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화재 감식 결과는 잔여화기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한편 복구비는 함안군(군수 河盛植)에서 지원기로하여 보조금 신청중에 있다.

(부산화수회 趙鏞澤)

## 조근제 경남도의회 부의장선출



조근제 도의회 부의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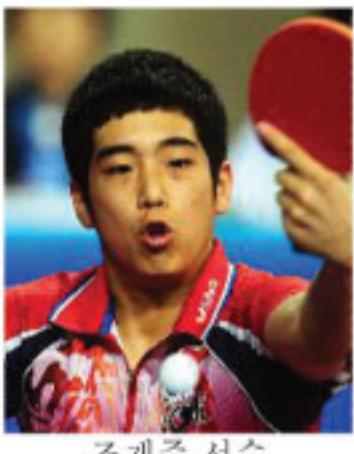
본향출신 조근제(趙根濟  
節度使公派) 경남도의회의

원이 7월 20일 본회의에서  
경남도의회 부의장으로 선  
출되었다.

조의원은 제8대에 이어  
9대의원으로 재선된 후 성  
실한 의정활동을 펴 전반기  
에는 농수산위원장과 부산·울산·  
경남 축협조합장 협의회 회  
장을 역임한 趙根濟의원은  
본회 자문위원으로서 종사  
에도 빠짐없이 참여하고 있  
어 종원된 도리를 다하는데  
모범이 되고 있다.

## 함조 출신 탁구 선수들

함안군 함안면 출신 국가  
상비군을 역임한 조언래(趙  
彦來, 執義公派 26세), 선수  
는 농심 삼다수에서 에쓰-  
오일로 이적 한 후 프랑스  
헤네본 클럽과 계약으로 프  
랑스리그인 Pro A에서 활



조재준 선수

함안군 산인면 출신으로  
주니어 국가대표로 국제무  
대에서 여러 차례 메달을  
따 이름이 많이 알려져 있  
는 조재준(趙在浚, 執義公  
派, 19세) 선수는 올해 창  
원 남산고를 졸업하면서  
김택수(국가대표 남자탁  
구팀 감독) 감독이 이끄는  
탁구의 명가 대우중권에  
입단했다. 조재준 선수는



조연래 선수

2012년 3월에 작고한 대종  
회 조목래(趙穆來) 고문의  
손자이기도 하다.

(사진은 지난 5월 18일  
“2012년 한국마사회(KR  
A)코리아오픈 국제탁구대  
회” 21세이하 남자단식 그  
룹경기에서 성가풀의 광수  
지선수에게 공격하는 조재  
준선수 모습)

## 조용래 부회장, 복사기 기증



조용래 대종회 부회장

대종회 사무실에 비치된

복사기가 수명이 다되어  
사용치 못해 불편을 겪고  
있다는 말을 조양제(趙良  
濟) 判決公派 종회장으로  
부터 전해들은 조용래(趙  
容來·禦侮公派) 본회 부  
회장이 지난 8월 16일 복사  
기 구입비로 250만원을 보  
내왔다. 이 돈으로 “신도  
N600” 신형제품을 구입하  
였으며 구입비는 230만원

이 들었다.

수명이 다된 복사기는  
창원시 마산합포구 거주  
조호제·신재(趙虎濟·信  
濟) 형제가 용지수납장과  
같이 기증했던 것이며,  
이 외에도 趙虎濟 본회  
자문위원은 문풍루(聞風樓)  
보수공사 협찬금을 내는  
등 평소 종사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고  
있으며, 節度使公派이다.

## 집의공파 종중에서 비품 기증



조영제 집의공파 종회장

대종회 사무실에 있던  
냉장고가 구형 47ℓ 용량  
으로 사용하기 불편하던  
차에, 이런 사정을 전해들  
은 집의공파종중(執義公派  
宗中·종회장 趙英濟)에서  
특히 지난 여름과 같은  
무더위에 좀 더 유용하게  
쓸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구입비 100만원을 조노제  
(趙魯濟) 宗中총무 편으로  
보내와 8월 20일에 437,0  
00원을 주고 구입하였다.

또 잔금 중 45만원으로  
지난 9월 25일에 컴퓨터  
본체를 구입하여 유용하  
게 사용하고 있다.

## 조우성 경남도의회 의원

‘대한민국 문화경영대상’ 수상

경남 함안군 군북면 출신  
경남도의회 조우성(趙祐成  
·濟忠毅公派) 의원이 지난  
9월 11일 ‘2012 대한민국  
문화경영대상’ 우수 의  
정행정 부문에서 대상을 수  
상했다.

‘대한민국 문화경영대상’  
은 건전한 기업문화를 창출  
하고 사회 각 분야에서 뛰어난  
경쟁력을 지닌 인물·  
기업·기관 등을 발굴하는



조우성 도의회 의원

취지에서 헤럴드 경제가 매  
년 시상하고 있다.

## 저서 출판

### 도봉선생문집(道峰先生文集) 간행



회장 趙君濟)에서 『道峰  
先生 文集』 영인본을 20  
12년 9월 1일 간행했다.

번역은 부산대학교 점필재  
연구소 정석태(鄭錫胎)  
박사가 맡았고, 출판은 부산  
에 있는 세종출판사에서 발  
간했다. 道峰公은 충의공(忠  
毅公)대소현 조종도(大笑軒  
趙宗道) 선생의 셋째 아  
들인 부사공(府使公) 조영  
흔(趙英混)의 세 번째 아드  
님이시다.

## 조혜순 시인 『악바리』 출간



9월 8일 시집 『악바리』  
를 출간했다.

함안조씨 대종회보를 인  
쇄하고 있는 규문인쇄소 조  
규제(趙圭濟·參議公派) 종  
원의 딸로 2012년 7월  
월간 국보문학 시·수필부  
분 신인상을 수상하기도  
한 조 시인은 국제웰빙전문  
가협회 행복지도사로 일하  
면서 시와 수필을 계속 발  
표해 왔다.

### 함안조씨 대종회보

등록번호 : 함안 바, 00001  
등록일자 : 2012년 8월 16일

대종회 전화번호 : 585-6787  
일반전화 : 585-6788  
팩스전용 : 585-6869

## 咸安趙氏 大宗會의 無窮한 發展을 祈願합니다

會長 : 趙仁奎(來)  
首席副會長 : 趙鏞洙  
副會長 : 趙鏞貞, 趙敬濟, 趙昇濟, 趙福來,  
趙相來, 趙景來, 趙承洙

監事 : 趙炳來, 趙敬來  
事務局長 : 趙廣濟  
財務局長 : 趙顯旭

咸安趙氏蔚山花樹會

## ※기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受贈圖書目錄

2012年 8月 1日~  
2012년 11月 30日

接受日字	圖書名	卷(冊數)	寄贈者住所 · 姓名
12.8.16	연화(3-2)	1	함안군 가야읍 趙丁來
*	固城李氏 大宗會 發展史	1	김해시 장유면 趙旭來
8.17	同知公 勉道先祖 分財記(복사분)	1	창원시 의창구 趙鏞健
*	朝鮮前期의 濟洛詩風 漢詩研究	1	부산 수영구 趙昌奎
9.07	임진왜란과 김성일	1	창원 마산회원구 내서읍 趙聖來
*	임란직전 경인통신사 행과 귀국보고 제조명	1	" "
9.11	踏海錄, 雙節錄, 紅日廟誌, 洛東齋誌 合編	1	부산 해운대구 趙相來
*	咸安趙氏 文獻錄	1	" "
*	(田壠편)	1	" "
*	嶺南人物考 原(복사분·복사)	1	" "
9.28	역주 道峰先生文集	1	부산 연제구 趙君濟
10.05	晦闇集 乾坤(복사분·복사)	각1	부산 해운대구 趙相來
10.16	「길」同人誌(제2호 2012)	1	부산 해운대구 趙元濟
*	樗山遺稿	1	부산 해운대구 趙相來
*	槐隱遺稿	1	" "
11.03	梅軒詩稿 序	1	" "
11.05	한국국보문학 · 동관47호(5-4)	1	함안 군북면 趙圭濟
*	악바리, 俗韻기 (조혜순 시집) (5-4)	각1	" "
11.21	咸安趙氏 賦侮公派 世譜 · 乙酉年	1	경북 예천군 趙弼權

## 임원·이사회비(협찬금) (단위:千원)

○ 지로 · 종회보 계좌<2012년 07월 01일~  
2012년 11월 30일까지 · 입금순>

조인규	울산 남구 장생포동(부회장)	100
조창래	경북 청송군 안덕면 신성리(고문)	100
조재승	경남 진주시 집현면 정수리(고문)	100
조용가	경기 안양시 만안구 석수1동 (부회장)	100
조형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부회장)	100
조출래	대구 서구 비산 7동(이사)	200
조준재	경남 함안군 군북면 장자리(자문위원)	100
조관제	서울 서초구 서초동(이사)	200
조정제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봉암동(이사)	100
조용덕	부산 연제구 거제1동 한일Y&IA(이사)	100
조일제	서울 용산구 이촌동(고문)	200
조석규	서울 송파구 문정동 올림픽웨미리A(이사)	300
조영래	경남 함안군 군북면 원북길(이사)	100
조용암	대구 수성구 황금동(이사)	200
조학규	부산 동구 초량1동(이사)	100
조무체	부산 부민동2가	300

○ 현금 · 대종회 계좌<2012년 07월 01일~  
2012년 11월 30일까지> (단위: 千원)

조용섭	경남 함안군 군북면 하림리(수석부회장)	100
조상제	경남 함안군 군북면 중암리(자문위원)	100
조원기	서울 강남구 대치1동(협찬금)	300
조용하	울산 남구 신정4동(부회장)	100
조현옥	울산 중구 우정동(협찬금)	50
조충래	경기 과천시 별양동(이사)	100
조의제	경기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자문위원)	100
조정규	경남 함안군 법수면 대송리(이사)	100
조종연	부산 해운대구 좌3동(자문위원)	100
조문규	경남 함안군 산인면 모곡리(이사)	100
조성래	경남 함안군 산인면 입곡리(이사)	100
조명래	대구 북구 산격2동(이사)	100
조용하	경북 청송군 안덕면 복리(부회장)	100
조수남	경남 함안군 가야읍 말산리(자문위원)	100
조양제	대구 중구 대안동(부회장)	100
조평래	경남 함안군 할안면 북촌리(이사)	100
조용민	전남 나주시 남평읍 오계리	100
총의공파종중(종회장趙煥來 쌍절각판리비)		200
조영제	경남 함안군 함안면 괴산리(부회장)	100
조용경	경북 청송군 안덕면(이사)	100
조용제	경북 청송군 현서면(이사)	100
조동휘	경북 안동시 옥정동(고문)	500
조인규	울산 남구 장생포동(부회장)	200
조광제	울산 남구 삼산동(이사)	100

임원·이사회비 협찬금 계좌번호  
농협 177441-51-001861  
함안조씨 대종회

## 종회보 협찬금 명단 (단위:千원)

○ 지로 · 종회보 계좌<2012년 7월 1일~  
2012년 11월 30일까지 · 입금순>

조정웅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회원1동	50
조용홍	경남 함안군 산인면 모곡리 대천	30
조용만	경북 포항시 기계면 흰내리	50
조갑래	경북 통영시 북신동	50
조화제	경남 함안군 산인면 내인리	10
조설제	경남 진주시 봉곡동	100
조해제	경남 함안군 군북면 오곡리	30
조명규	경남 의령군 부림면 익구리	10

## = 행사 협찬자 명단 =

지난 3월 27일(陰3.06) 단을, 지난호 기사가 넘쳐 조묘제(祧廟祭)와 같은날 개재치 못했는데 이날 현서산서원에서 있는 大宗會 성금을 낸 종원의 명단은 총회시 접수된 현성자 명 아래와 같다

## 祧廟享禮 獻誠金

2012年 3月27日(陰 3月6日 · 初丁日) (단위:千원)

연번	성명	주소	금액
1	조현진	함안 군북면 양정리방앗간	30
2	趙基周(基大)	충남 천안시 풍세면(舍人公派)	100
3	趙性贊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耐軒公派)	100
4	趙禎來	泰判公派	100
	계		330

## 第37回 定期總會 協贊金

2012年3月27日(陰 3月6日 · 初丁日) (단위:千원)

연번	성명	주소	금액
1	趙允來	경기 고양시 덕양구(泰判公派)	100
2	趙弼濟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節度使公派 종회장)	300
3	參判公派宗中	서울 종구 산림동(종회장 趙學濟)	100
4	진천종친회	충북 진천군	100
	계		600

100 조용만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30 조학규 부산 동구 초량1동  
20 조용후 서울 동대문구 장안2동○ 현금 · 대종회 계좌<2012년 07월 01일~  
2012년 11월 30일까지> (단위 : 千원)200 조동휘 경북 안동시 옥정동  
50 조정규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교방동종회보 협찬금 계좌번호  
농협 805047-51-069486  
함안조씨 대종회

## 함안 3先所 豆향 獻誠者 名單

2012년 11월 24·25일(壬辰 10月 11·12日) 단위 : 千원

연번	성명	금액	비고
1	趙聖來	300	창원 마산회원구(大宗會長)
2	趙鏞斐	100	함안 군북면(首席副會長)
3	趙薰濟	100	함안 군북면(忠毅公派)
4	趙鏞珍	100	함안 가야읍(節度使公派)
5	趙鏞均	100	함안 산인면( )
6	趙烹來	100	함안 가야읍(忠毅公派 종회장)
7	趙允來	100	경기 고양시(參判公派)
8	趙允濟	100	대전 대덕구(參議公派)
9	趙鏞杉	100	창원 마산합포구(節度使公派)
10	趙喜來	100	부산 연제구(端溪公派)
11	趙日來	100	진주 칠암동(斗巖公派·진주화수회장)
12	趙顯旭	100	울산 중구(參議公派)
13	趙顯國	100	서울 서초구(忠毅公派)
14	趙顯峻	100	부산 동래구(斗巖公派·부산화수회장)
15	趙旭來	100	김해 장유면(參議公派)
16	趙熙濟	100	경기 안산시(潤松堂公派)
17	趙廣濟	100	울산 남구(固城公派)
18	趙顯道	100	부산 북구(參議公派)
19	趙鍾來	100	함안 가야읍(東溪公派·함안화수회장)
20	趙鏞岩	100	대구 수성구(東溪公派)
21	趙官來	100	창녕 장마면(司果公派)
22	趙洪來	100	경기 의정부시(執義公派)
23	趙鳳來	100	합천 합천읍(參判公派)
24	趙鳳永	100	진주 상대동(參判公派)
25	趙泰濟	100	경기 수원시(參判公派)
26	趙鳳來	100	통영 광도면(노산종중 종회장)
27	趙在守	100	창원 마산합포구(節度使公派)
28	趙仁圭(來)	100	울산 남구(參議公派·울산화수회장)
29	趙相來	50	부산 해운대구(參議公派)
30	趙丁來	50	부산 해운